

## 아세안 2019: 어수선한 주변 환경, 꾸준한 통합 추진

이 재 현\*

### 국문초록

2019년의 아세안은 돌아보면 어수선한 주변 환경 속에서 조용한 통합 추진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요약된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개별 국가 정세와 달리 아세안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 국제 관계 환경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했고, 아세안은 이런 환경에 나름 대응하고자 했으나 쉬운 과제는 아니었다. 경제 통합에서는 의장국 태국 주도로 4차 산업 혁명 등에 대비한 아세안 차원의 공동 노력이 제시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노령화, 아동 문제 등에서 의미 있는 아세안 차원의 대응들이 있었다. 한-아세안 관계에서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어려운 대내외 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했고, 11월 제3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를 확인 시켰다.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에는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는다. 특히 미중 경쟁 속 전략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2020년 의장국 베트남의 행보에 크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제어:** 아세안, 동남아,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신남방정책, 태국, 베트남, 아세안 통합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aelee@asaninst.org.

## I. 서론

2019년 한해 아세안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아세안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강대국 경쟁으로 압축되는 이 대외환경은 특히 아세안에게 큰 도전이었다.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 경쟁이 지정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에 아세안이 놓여 있다. 미국 등이 추진하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퍼시픽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과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BRI, Belt & Road Initiative) 전략이 정확히 만나는 지점에 아세안 국가들이 놓여 있다. 아세안은 이에 대해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불충분하지만 상황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대국 경쟁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의 인도-퍼시픽에 대한 관점 (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한해동안 아세안이 대외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아세안 내부, 특히 아세안을 이끌고 가고 아젠다를 설정하는 의장국의 특성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지는 아세안 내에서도 의장국은 회의 개최, 아젠다 설정, 슬로건 설정 등으로 아세안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협력의 주안점, 방향성, 그리고 아세안의 내적 동력이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인다. 2019년 아세안은 태국이 이끌었다.

태국은 2019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태국의 정치적 안정과 태국이 보다 강점을 가지는 사회문화 분야 아젠다를 내세우려 노력했다. 이런 태국의 의도는 2019년 아세안 슬로건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진전 (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에도 드러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는 태국 리더십 하에서 사회문화는 물론이고 정치안보, 경제협력에까지 널리 적용되었다. 반면 아세

안이 집합적으로 대외적 목소리를 내는데 태국의 리더십은 다소 취약했다. 아세안의 인도-퍼시픽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AOIP가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태국의 공헌은 제한적이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한해 아세안이 내외로 맞이했던 환경과 그 안에서 아세안내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로 검토할 것이다. 편의상 크게 아세안 대외 관계를 포함한 정치안보 협력 분야와 경제 협력 및 사회문화 협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아세안의 2019년을 되돌아 볼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입장에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아세안 관계의 변화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도전에 대해서도 말미에 검토할 예정이다.

## II.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과 아세안의 대응

2019년 한해 아세안과 동남아 개별 국가의 정치안보 문제, 국제관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층위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동남아 개별 국가의 국내 정치, 개별 국가의 안보 문제를 볼 수 있다. 개별 국가의 국내 정치 문제는 필연적으로 아세안 내 동학에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동남아 국가들 사이 아세안 차원의 정치안보, 국제관계 관련된 합의와 협력이라는 수준을 상정할 수 있다.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아세안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 국제관계 동학과 아세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2019년 한해 관심을 모았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진행된 선거 모두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선거를 통해 승리를

거두었다. 먼저 국내정치와 관련해 2019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태국의 총선이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는 새 헌법 통과 후 총선을 약속했지만 몇 차례 총선이 미뤄졌던 상황이었다.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 새 헌법의 민주성은 차치하고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5년간 군부 통치가 이어졌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3월 치러진 총선 후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던 빠아웃(Prayut Chan-o-Chan)이 이끄는 팔랑 프라차랏(Palang Pracharat)이 민주당 등 16개 정당을 묶어 집권에 성공했다. 선거 직후 비례의석수 최종확정이 늦어지면서 논란이 있었다(Jaipragas and Thongnoi 2019). 또 지역구 의석수로 팔랑 프라차랏에 도전하는 프어타이(Pheu Thai)가 집권당을 앞섰고 또 다른 야당인 미래당(Future Forward Party)도 적지 않은 의석수를 차지해 진짜로 총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누구인 가라는 의문도 남는다(Thongnoi 2019).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 선거 후 정부 수립까지 많은 논란과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4월에 치러진 인도네시아 선거도 관심의 초점이었다.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는 늘 관심의 대상이다. 재선을 노리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대결을 벌였던 빠라보워(Prabowo Subianto)의 재대결이 이뤄졌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빠라보워의 도전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소수이지만 정권 교체를 예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Bayuni 2019; Arifianto 2019). 그러나 막상 선거 결과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선거보다 빠라보워 후보와의 간격을 더 벌렸다(Chew 2019). 같이 치러진 의회선거에서도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Indonesian Democratic Party-Struggle)은 의석 점유율을 더 높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안정적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다(Lane 2019).

정치안보 문제와 관련한 아세안 내 협력은 다른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비해서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국방이나 안보에 관한 부분은 항상 국가 주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분이며, 아세안 국가들은 이런 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에서 협력에 대해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다. 아세안의 방식에서 주권존중-내정불간섭 항목은 이런 아세안 전통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차원에서 2019년 진전이라 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아세안국방장관회의(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의 틀 안에서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19년 ADMM은 제 13차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아세안국방장관공동성명(Joint Declaration of the ASEAN Defence Ministers on Sustainable Security)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아세안국방장관회의의 구체 협력 사항에 대한 재확인인데, 주요 내용은 ADMM 협력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문건(Concept Paper on the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the ADMM Initiatives), 국경 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에 관한 문건(Concept Paper on the Role of ASEAN Defence Establishments in Supporting Border Management), 10개국 국방부간 핫라인 확장 관련 문건(Concept Paper on Expansion of the ASEAN Direc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아세안 공동 정보 수집 이니셔티브인 ASEAN Our Eyes 운영 규칙(Terms of Reference of ASEAN Our Eyes), 해상 상호작용에 관한 ADMM 가이드라인(ADMM Guidelines for Maritime Interaction) 등, ADMM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ADMM 2019; ASEAN 2019a). 물론 실질적인 협력의 효과와 수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 군사정보 수집과 같은 분야로 까지 아세안 내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아세안이 집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 안보 문제 중 하나가 남

중국해 문제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중국이라는 아세안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역학 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아세안의 2019년을 돌아보는 출발점으로 적당하다. 2019년 한해에도 남중국해에서 갈등은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사이 갈등은 꾸준히 재현되었다. 2019년 7월 중국은 유엔해양법상 베트남의 대륙붕에 포함되는 뱅가드 리프(Vanguard Reef)에 탐사선 하이양 디지 8(Haiyang Dizhi 8)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고, 이를 호위하는 중국 해양경비대 소속 함정들이 베트남의 시추작업을 방해하기도 했다(Thu 2019).

남중국해 문제는 해상에서 갈등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행동규약(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협상을 놓고 두 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효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 합의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업그레이드 하고 구속력을 가진 COC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멀게는 행동선언에 합의한 직후인 2002년부터 거의 20년간, 짧게는 국제중재재판(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관해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6년부터 3년째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아세안과 중국은 협상 당사자들이 예상보다 5개월이나 빠른 2019년 7월 COC 초안에 대한 1회독을 마쳤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ASEAN 2019b).<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COC 협상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부세력, 즉 아세안과 중국이라는 갈등 당사자들을 제외한 미국 등 외부세력의 남중국해 문제 관여 여부다. 중국은 COC 초안에

---

1) 초안에 대한 1회독을 마쳤다는 의미는 마련된 초안에 각 국가별로 이견, 의견을 달아 놓은 초안이 있고 그에 대해서 국가별로 1차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이다.

남중국해에서 경제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아세안, 중국을 제외한 지역 외부 국가(counties outside the region)나 외부 국가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군사 측면에서도 중국의 제안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의 경우에 관련국들에 사전 통보를 하고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역 외부 국가와 군사훈련을 용인한다(Thayer 2018). 다시 말해 중국이 반대한다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와 중국 외 외부 국가의 단독 혹은 아세안 국가와 공동으로 군사훈련, 공동 조사, 자원 개발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총 3회독까지 진행할 계획인 COC 초안 독회에서 이런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확대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 경쟁에 끼어 있는 아세안이 보인다. 2018년부터 무역 전쟁이라는 형태로 본격화 된 미-중 경쟁은 사실 2000년대 후반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더 큰 전략 경쟁의 일부분이다. 현재 이 경쟁은 미국의 인도-퍼시픽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사이 충돌로 표상된다. 해양을 따라 서진하는 미국의 인도-퍼시픽과 대륙-해양 두 갈래로 서진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정확하게 동남아/아세안 지역에서 중첩된다. 미-중이 충돌하는 이 장에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을 앞세워 지역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결국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으로 끝난다는 경고를 앞세워 동남아 국가들에 접근하고 있다(Arase 2019).

이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득이 될 부분은 거의 없다. 결국 안보와 경제 다방면에서 역시 강대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극심한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회의 즈음

해 한 인터뷰에서 이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의 발언은 이를 정확하게 대변한다.<sup>2)</sup> 이런 강대국 전략경쟁의 반대급부로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신뢰보다 불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가 2019년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의 전문가들과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신의 비율은 50%가 넘는다(ISEAS 2019).

이런 딜레마 속 아세안의 전략은 마땅한 묘안을 찾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현실주의적 균형이나 이상주의적 제도, 구성주의적 사회화 등의 가능한 모든 전략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채용해 어렵게 앞의 상황을 헤쳐 나가는(muddling through) 것 외에 별다른 묘안은 없다(이재현 2012). 여기에 추가로 헤징의 방법도 동원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아세안 국가들은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합동훈련을 개최했다. 7월에 있었던 미국, 일본, 인도의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에는 필리핀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미 아세안 국가들은 2018년 중국과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아세안은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 모두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헤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세안은 미국으로부터 인도-퍼시픽에 동참하라는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6월에 열린 제 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인도-퍼시픽에 대한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발표했다(ASEAN 2019c). 모두 5쪽으로 이루어진 AOIP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 경쟁에 관한 아세안의

2) 이셴룽 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우리 [아세안]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관계에서 아세안을 하나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강대국 관계가] 악화된다면 우리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세안 내] 그런 위협에 대한 인식과 강대국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갈등의 국면으로 들어갈 때 제 3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했다(Aqil 2019).

고민이 녹아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퍼시픽을 지역 범주의 관점에서 보면 아세안을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시키는 개념으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구상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퍼시픽을 지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국으로 부터의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인도-퍼시픽을 거부하게 되면 아세안이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미국으로부터 압력 혹은 안보문제에서 방기(abandoning)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은 2017년 말부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대안적 인도-퍼시픽 관점에 관한 논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로 나온 AOIP에 관해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아세안 국가들 사이 강대국 경쟁에서 오는 압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동과 협력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Laksmana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AOIP는 지금까지 아세안이 집합적으로 보여준 대외전략의 전통에 충실한 문서다. 미국의 인도-퍼시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한편 여러 번에 걸쳐 포괄성(inclusiveness)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배려하고 중국의 포함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느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고 모든 강대국에 헤징하는 아세안의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나아가 AOIP는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주도의 지역 다자협력 틀을 통한 협력과 지속개발가능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까지 포괄해 아세안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 Ⅲ. 2019년 아세안의 경제, 사회문화 협력

경제부문에서 2019년 아세안은 전반적인 불안과 작은 희망이 뒤

섞인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세안 개별국가를 넘어 전체적으로 아세안 경제는 성장 기조를 이어 나갔다.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2019년 아세안 국가의 경제는 4.6%~5.2% 성장이 전망된다.<sup>3)</sup> 무엇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아세안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표 1. IMF와 OECD의 아세안 경제 성장 전망>

국가	기관	2019 성장률	국가	기관	2019 성장률
브루나이	OECD	2.3	필리핀	OECD	6.5
	IMF	1.8		IMF	5.7
캄보디아	OECD	6.9	싱가포르	OECD	2.9
	IMF	7.0		IMF	0.5
인도네시아	OECD	5.2	태국	OECD	4.1
	IMF	5.0		IMF	2.9
라오스	OECD	6.8	베트남	OECD	6.7
	IMF	6.4		IMF	6.5
말레이시아	OECD	4.8	아세안	OECD	5.2
	IMF	4.5		IMF	4.6
미얀마	OECD	6.9			
	IMF	6.2			

출처: IMF 2019; OECD 2019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 무역 질서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아세안 안에서도 높았지만,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본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지지부진한 자리를 메우며 베트남의 대미

3) IMF는 2019년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전체적으로 4.6%, 보다 앞선 경제인 아세안 5의 성장을 4.3%로 전망했다. 반면 OECD의 경우 2019년 아세안의 성장을 5.2%로 전망했다. 각각 IMF 2019와 OECD 2019를 볼 것.

수출이 급증했다. 2019년 한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35~36% 정도 증가했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에도 비해 약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Shao 2019; Fang 2019). 또한 해외투자에 불리해진 중국을 떠난 자본이 동남아시아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The Business Times 2019). 반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아세안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관찰과 함께 아세안 각 국가마다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이기기 위한 경제 정책도 등장했다(Kusaku 2019; Malvenda 2019).

한편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통합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9년에는 Single Window라고 부르는 아세안 내 관세행정 통합에서 진척이 있었다. 아세안 single window는 각 국별 통합된 관세 행정인 국가별 single window 사이 연계성을 높여 상품의 통관, 관련 서류 작업을 일원화, 간소화 해 아세안 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다. 2018년 시작된 이 서비스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되었는데, 2019년 한해 브루나이와 라오스가 합류해 총 8개국이 실시간으로 상품 무역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시작했다(ASEAN 2019d).

뿐만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 의장국인 태국의 주도로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합의도 도출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Industrial Transformation to Industry 4.0)에 합의했다(ASEAN 2019e). 이 선언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디지털 밸류 체인 연계성을 증진하고, 스타트업, 소상공인(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등에 초점을 둔 4차 산업 혁명 대응,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AI, 증강현실을 위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아세안 내 협력 증진을 선언

했다. 그 외에도 아세안 통합과 경제성장, 4차 산업 혁명, 연계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합의와 실행 계획들이 합의되었다.<sup>4)</sup>

경제협력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꼽으라면 역시 연말에 타결된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RCEP은 아세안+3의 13개국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 16개국 간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다.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차원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시도가 있었다. 아세안+3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을, EAS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포괄적경제협정(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계획이 서로 경쟁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 지역 자유무역 협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2012년 RCEP을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한 RCEP은 한 때 미국 등의 주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환태평양경제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경쟁에 놓였다. 이후 TPP는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11개국이 추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TPP(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PP)라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RCEP은 최근 몇 년간 아세안 의장국 마다 자신의 입기 내에 타결하겠다는 공약을 걸 정도로 매 의장국의 주요 관심사였으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역 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았던 2019년 말에 와서야

4) 대표적으로 아세안 디지털통합 계획의 실행 계획 2019-2025(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2019-2025), 아세안 혁신 로드맵 2019-2025(ASEAN Innovation Roadmap 2019-2025),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숙련노동, 전문 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Guideline on Skilled Labour/Professional Services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아세안 지속가능 자본 시장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ASEAN Sustainable Capital Market) 등이 있다.

최종 타결의 걸림돌이 되었던 인도가 빠진 15개국 사이 RCEP 협정이 합의되었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은 인도가 최종 서명 시한인 2020년까지 RCEP에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인도의 참가 여지를 남겼다(ASEAN 2019f).

사회문화 부문에서 아세안 내 협력은 인적교류, 교육, 문화, 보건으로부터 재난 등 비전통 인간안보 부문 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또한 2019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사회문화 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태국이 의장국이었던 2019년 초 아세안 정상들은 ‘2019 아세안 문화의 해 아세안 정상 선언’(ASEAN Leaders’ Statement on the ASEAN Cultural Year 2019)을 발표했다.

아세안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많은 새로운 합의들이 쏟아졌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었던 아동과 고령화 등 부문에 합의들이 많았다. 이 부분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온라인 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아세안 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All Forms of Online Exploitation and Abuse in ASEAN), ‘이주에 있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Migration), 그리고 ‘아세안 내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아세안 약속 재확인을 위한 공동 선언’(Joint Statement on Reaffirmation of Commitment to Advancing the Rights of the Child in ASEAN) 등에 합의했다.

그 외에도 사회문화 부문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훈련센터’(ASEAN Training Centre for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를 창설했다. 또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백신 안정성 및 자립성 선언’(Declaration on ASEAN Vaccine Security and Self-Reliance)을 도출했고, 교육 부문에서는 아세안 2030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교육 파트너십을 위한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 on Advancing Partnership in Education for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EAN)에도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사무국은 2019년 8월 기존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 건물 뒤편으로 보다 큰 건물을 새로 완공해 새 청사 시대를 맞게 되었다(Jakarta Post 2019).

#### IV. 한-아세안 관계: 신남방정책과 특별정상회의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관계 전체에 있어서 일종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였다. 2019년 11월 천명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추진 2년차를 맞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말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신남방정책의 두 번째 단계 혹은 후반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또한 2019년은 1989년 한국이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이 됨으로써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가 30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에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를 개최했다.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역 외교정책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구성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외교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외교다변화 정책의 핵심이다(국정기획자문회의 2017). 이미 아세안과 한국의 실질 경제, 사회문화 부문 협력이 주변 4강을 뛰어 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

로 아세안의 중요성에 걸맞은 자리를 찾아주는 한편 미, 중 등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교차압력 하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협상력(leverage)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전략적 협력 대상을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신남방정책은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견국 한국의 외교에 대해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기대되는 지역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아세안 국가들이라는 차원에서 중견국 외교의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신남방정책 추진 2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이 정책은 나름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노정한다. 한반도의 급격한 상황변화, 일본과 무역 갈등 등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외교 과제들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신남방정책 선언 2년이 지난 2019년 말까지 신남방정책 추진의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다. 과거 정부처럼 한반도 혹은 주변 4강 관계에 이슈들이 있을 경우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아예 사라져 버리던 상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상 차원에서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중시의 메시지를 지속하는 등 한국의 정책 추진 의지도 아세안 국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했다.<sup>5)</sup> 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상의 의지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제도도 중요하다. 신남방정책은 정책 추진을 위해 먼저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나아가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아세안과 동남아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했고, 대 아세안 외교의 전초 기지인 아세안 한국 대표부의 위상과 인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

5)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방을 시작으로, 2018년 3월에는 베트남, 7월에는 싱가포르,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9월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하여 취임 2년 반, 신남방정책 선언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이 완료되었다.

을 했다.<sup>6)</sup> 더 나아가 정부의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꾸준한 강조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 사이 아세안에 대한 일정한 인식 개선,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이재현·강충구 2020).

반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그리고 평화(peace)로 구성되는 신남방정책의 3P 원칙은 여전히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내 놓은 신남방정책 구체 공약사항들을 보면 번영과 사람으로 대표되는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공약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 신남방특위 위원장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맡음으로 해서 경제협력 관련된 정책들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 또한 경제협력을 통해 신남방 지역, 아세안에서 성과를 숫자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평화협력 부문에서는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평화협력 부문의 협력 사항들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sup>7)</sup> 무엇보다 양자협력을 통해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핵심인 경제,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평화 협력은 양자협력 보다는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지역의 평화, 안보 문제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아직 신남방정책의 평화협력은 양자협력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통해 강점을 가질 수

---

6) 2000년대 이후 아세안, 동남아를 담당하는 외교부 부서는 아태국 소속 동남아과 1개에서, 남아태국 소속 동남아과와 아세안 협력과 2개과로 확대되었고,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아세안국이 독립해 아세안국 소속으로 동남아1과, 동남아2과, 그리고 아세안 협력과의 세 개로 확대되었다.

7) 신남방정책의 평화협력 항목을 보면 1) 정상 및 고위급간 교류 활성화, 2) 한반도 평화 건설에 대한 아세안의 기여, 3) 국방-방산협력, 4) 비전통 안보, 5) 아세안 지역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아세안과 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위한 협력을 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한-아세안 간 양자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있는 지역 다자협력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19년 11월에는 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제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과 처음으로 관계수립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를 자국에서 세 차례 개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sup>8)</sup>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의 계기 처음으로 한-메콩 정상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한국과 메콩 지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는 애초 모든 아세안 국가 정상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개최를 며칠 앞두고 캄보디아 훈센(Hun Sen) 총리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9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만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되었다.

이번 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중요한 한-아세안간 협력과제와 이니셔티브들은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의장성명과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사람, 번영,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한강-메콩 선언’에 모두 담겨 있다. 구체 협력 사항들을 모두 열거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늘 그렇듯이 이 문서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대급부로 한국 역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관점을 드러냈다.<sup>9)</sup> 나아가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지역

8)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보다 아세안과 대화상대국이 된지 더 오래되었지만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더 적다. 특히 다른 국가들은 매 10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반해 한국은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9년 매 5년마다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최초로 3회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9) 제3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성명에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에 대한 존중,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그리고 남중국해의 비군사화라는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데, 특히 남중국해의 비군사화는 이전 한국의 입장에 비해서는 보다 강한 입장이다.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을 담았다  
는 점 역시 눈에 띈다.

정상회의 전체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전의 한-아세안특별  
정상회의 혹은 여타 한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와는 달리 사전 부대  
행사,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아세안  
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졌다는 점은 여타 정상회의  
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던 의지를 읽을 수 있  
다. 또한 한-메콩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참여 의지를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이  
이미 오랫동안 메콩 지역 개발에 참여해온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어떤 차별성을 가진 사업을 메콩지역에서 펼칠 것인가는 과제로 남  
는다.

## V. 결론

2019년 아세안은 태국의 리더십 아래 무난한 한해를 보냈다. 겉보  
기에 무난하지만 결코 쉬운 한해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아세안을 둘러  
싼 주변 전략 환경, 경제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2019  
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중 전략 경쟁, 무역 전쟁 속에 아세안은  
나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AOIP, RCEP 등에서 성과를 내려 했다.  
내적으로는 어수선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통합 추진  
을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축적해 나갔다. 2020년 아세안공동체  
선언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아세안 통합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가 어  
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0년 아세안을 둘러싼 환경은 2019년 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 속에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된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 의장국뿐만 아니라 2020-2021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겸한다. 2019년부터 외교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베트남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Parameswaran 2019; Kavi 2020). 베트남 리더십 하에 아세안의 대미, 대중 관계 등 대 강대국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남중국해 문제, COC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2020년 아세안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베트남의 강하고 적극적인 아세안 리더십이 일정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반면 아세안 내 불협화음을 크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한-아세안 관계와 신남방정책도 2020년 나름의 도전을 맞는다. 신남방정책 2.0에 관해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가 있을 것이다. 협력 사업들에서 구체적인 성과도 아세안 국가들은 기대할 것이다. 신남방정책 2.0 혹은 두 번째 단계를 맞아 한국은 새로운 협력이나 이니셔티브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많은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내실 있는 이행에 보다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남방정책은 단순히 한-아세안 사이 양자 협력을 넘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사이에 위치할 정도로 주변 강대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한 압력도 존재한다. 신남방정책이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사이에서 어떤 조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역시 한국 정부의 큰 과제다. 나아가 국내적으로도 2019년 말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약간의 주목을 받는데 대한 반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즉, 4강 외교를 접어두고 아세안에만 신경을 쓴다는 등 한국의 전통

176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적 외교 아젠다와 신남방정책을 제로섬(zero-sum)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회의. 2017.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 구상.” (미간행 보고서).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개 자료.” 20-21쪽.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176&board\\_id=4&](http://www.nsp.go.kr/news/news_view.do?post_id=176&board_id=4&) (검색일: 2019년 12월 15일)
- 이재현. 2012.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과 그 한계.” 『동아연구』 31(1): 49-82.
- \_\_\_\_\_. 강충구. 2020.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정치성향과 세대의 간극”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03. 2월 3일.
- ADMM. 2019. “Joint Declaration of the ASEAN Defence Ministers on Sustainable Security.” (Bangkok, 11 July 2019) <https://asean.org/storage/2019/07/Final-ADMM-JD-July-19.pdf> (검색일: 2020년 1월 8일)
- Aqil, Haziq Mahmud. 2019. “Amid US-China Tensions, ‘Not Easy’ for ASEAN to Stand Together; Must Find Common Ground: PM Lee.” *Channel News Asia* 23 June.
- Arase, David. 2019.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Outlook” *Trends in Southeast Asia*. No. 12.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
- Arifianto, Alexander Raymond. 2019. “Indonesian Presidential Election 2019 - State of Play: Who Will Win in Largest Single-Day Elections?” *RSIS Commentary* 12 April.
- ASEAN. 2019a. “Chairman’s Statement of the 35<sup>th</sup> ASEAN Summit.” (Bangkok, 3 November 2019) <https://asean.org/chairmans->

- statement-35<sup>th</sup>-asean-summit/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 \_\_\_\_\_. 2019b. “Joint Communiqué of the 52nd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Bangkok, 31 July 2019) <https://asean.org/storage/2019/07/CIRCULATE-Joint-Communique-of-the-52nd-AMM-FINAL.pdf> (검색일: 2019년 12월 4일)
- \_\_\_\_\_. 2019c.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https://asean.org/storage/2019/06/ASEA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https://asean.org/storage/2019/06/ASEA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 (검색일: 2019년 12월 4일)
- \_\_\_\_\_. 2019d. “Updates 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No. 6. November.
- \_\_\_\_\_. 2019e. “ASEAN Declaration on Industrial Transformation to Industry 4.0.” (Bangkok, 2 November) <https://asean.org/storage/2019/11/1-issued-ASEAN-DECLARATION-ON-INDUSTRIAL-TRANSFORMATION-TO-INDUSTRY-4.pdf> (검색일: 2019년 12월 3일)
- \_\_\_\_\_. 2019f.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Bangkok, 4 November) <https://asean.org/joint-leaders-statement-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rcep/> (검색일: 2019년 12월 4일)
- Bayuni, Endy. 2019. “Will Jokowi Win the 2019 Race or Will it be Prabowo?” *The Straits Times* 18 January.
- Chew, Amy. 2019. “Indonesia’s Joko Widodo Wins Second Term as President, as Elections Commission Releases Final Tally Early Amid Fears of Unrest.” *South China Morning Post* 21 May.
- Fang, Alex. 2019. “Vietnam’s 36% Export Surge to US Draws

- Scrutiny and Tariffs.” *Nikkei Asian Review* 04 July.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9: Asia and Pacific*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APAC/Issues/2019/10/03/areo1023>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 ISEAS. 2019.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Survey Report*.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Jaipragas, Bhavan and Jitsiree Thongnoi. 2019. “Thailand Election: Confusion over Party-list Seat Allocation Sparks Controversy.” *South China Morning Post* 12. April.
- Jakarta Post. 2019. “New ASEAN Secretariat Building to be Opened by Jokowi on ASEAN Day.” *Jakarta Post* 7 August.
- Kavi, Chongkittavorn. 2020. “Vietnam’s Dual Foreign Policy Strategy.” *Bangkok Post* 7 January
- Kusaka, Kiyoshi. 2019. “US-China Trade War will Hit ASEAN Economy Harder.” *Nikkei Asian Review* 09 July.
- Laksmmana, Evan A. 2019. “Flawed Assumptions: Why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is Defective.” *AsiaGlobal Online* September 19.
- Lane, Max. 2019. “The 2019 Indonesian Elections: An Overview.” *ISEAS Perspective* 2019:49. 14 June.
- Malvenda, Michael. 2019. “Trade War Incentives Schemes in ASEAN.” *ASEAN Briefing* November 21.
- OECD. 2019.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https://www.oecd.org/dev/economic-outlook-for-southeast-asia-china-and-india-23101113.htm> (검색일: 2019년 12월 23일)
- Parameswaran, Prashanth. 2019. “Why 2020 Will Be a Big Year for

- Vietnam's Foreign Policy." *Asia Dispatch* 3 December.
- Shao, Grace. 2019. "US Imports from China Shrank More Than 13% - but Imports from Vietnam are Popping." *CNBC* Nov. 21
- Thayer, Carl. 2018. "A Closer Look at the ASEAN-China Single Draft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 *The Diplomat* 3 August.
- The Business Times. 2019. "Asean Countries Benefiting from Trade War: Maybank Kim Eng." *The Business Times* 10 July.
- Thongnoi, Jitsiree. 2019. "Thailand's Election Results Have been Endorsed but Stand-off Between Junta and 'Democratic Front' Persists." *South China Morning Post* 9 May.
- Thu, Houg Le. 2019. "China's Incursion into Vietnam's EEZ and Lessons from the Past."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8 August.

(2020.01.15. 투고, 2020.01.16. 심사, 2020.01.30. 게재확정)

<Abstract>

## ASEAN 2019: A Steady March Towards Integration in Turbulent Environment

Lee Jaehyon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Looking back, ASEAN in 2019, can be best described by a quiet push for integration in the challenging external environment. While domestic politics of individual countries were rather stable, the strategic environment surrounding ASEAN has never been stable, which is best seen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was not easy for ASEAN to navigate in such a turbulent circumstance. The ASEAN Chair country in 2019, Thailand, successfully extracted support of the members for an ASEAN joint work plan for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ASEAN members have focused on the issue of children rights and protection in 2019 for their concerted action and came out with some concrete agreements. Korean government pushed forward its signature ASEAN policy, New Southern Policy. In November, Korea held a successful 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 which was an occasion that heralded Korea's sincerity to develop a deeper relations with ASEAN. Vietnam took over the ASEAN Chair country position in 2020. Vietnamese' Chairmanship draws attention especially in the area of ASEAN's strategy in the superpower competition and of South China Sea

182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dispute.

**Key Words:** ASEAN, Southeast Asia, 2019, 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 New Southern Policy, Thailand,  
Vietnam, ASEAN integration